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오 종 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18세기 조선시대 역사상의 교육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배 선 민

18세기 조선시대 역사상의 교육 연구

오 종 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0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배 선 민

논문개요

18세기 조선시대 역사상의 교육연구

조선의 18세기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기였다. 그 변화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18세기 역사 서술은 종합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어려운 구성이고, 학습하기도 어렵다. 그 원인으로서는 먼저 유기적 서술이 불가능한 분류사 체계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된 18세기 조선사회의 모습을 교과서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18세기 역사를 고등학생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시기 변화상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할 사실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한 18세기 역사상의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의 18세기 역사의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과 역사 재구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치사의 경우, 분류사가 정해 놓은 영역에 국한하여 설명하다보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발생한 정치적 변화를 유기적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서술의 초점이 국왕에 맞춰지다보니 이 시기 정치에서 탕평정치만 강조될 뿐이다. 재구성에서는 국왕의 정책 실행을 도와주는 정치세력과 피지배층의 상황도 서술하여 학생들에게 당시의 폭넓은 정치상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서에 누락된 경화

별열(京華閥閥)에 관한 내용을 추가 서술하여 이후 19세기 세도정치와의 연계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적 현상이기도 한 경향분기(京鄕分岐)도 명시하여 당시 정치상과 사회상의 유기적 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18세기 경제사의 대표적 특징인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은 이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역 간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화폐경제의 영향으로 변화된 18세기 전반적인 사회상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장 변화가 컸던 수도를 예시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문화사에서는 중간계층의 성장과 영향력을 소략하게 서술함으로써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분제의 동요나 서민문화의 발달을 폭넓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중간층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영향력을 서술하여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폭넓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한 방법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완벽한 방안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현행 분류사 체계 속에 영역 간 유기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 역사를 가르쳐야 할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가 누락하고 있는 영역 간 유기성을 교사의 재량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직에 몸담는 교사들 역시 시대사 중심으로 교육받았으며 분류사적 체계에 따라 교육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분류사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의 재교육과 교과서가 중복을 피해 누락하고 있는 영역 간 유기성을 제시하는 보조학습 도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머리말 | 1 |
| II. 18세기 조선 사회의 변화상 | 4 |
| 1. 경제 | 4 |
| 2. 정치 | 7 |
| 3. 사회 | 8 |
| 4. 문화 | 10 |
| III. 18세기 역사에 대한 교과서 서술 분석 | 12 |
| 1. 근대 태동기의 정치 | 13 |
| 2. 근대 태동기의 경제 | 15 |
| 3. 근대 태동기의 사회 | 18 |
| 4. 근대 태동기의 문화 | 20 |
| IV. 고등학생을 위한 18세기 역사의 재구성 | 23 |
| 1. 정치 - 비변사 중심 정치구조와 경화별열 | 23 |
| 2. 경제 -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중앙 집중 | 24 |
| 3. 사회 - 중간계층의 성장 | 26 |
| 4. 문화 - 서민문화의 발달과 그 배경 | 27 |
| V. 결론 | 29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 | |
|-------------------------------|----|
| 《표 1》 제 7차 국사교과서 대단원 · 중단원 목차 | 12 |
| 《표 2》 제 7차 국사교과서 정치사 분야 세부 목차 | 13 |
| 《표 3》 제 7차 국사교과서 경제사 분야 세부 목차 | 16 |
| 《표 4》 제 7차 국사교과서 사회사 분야 세부 목차 | 18 |
| 《표 5》 제 7차 국사교과서 문화사 분야 세부 목차 | 21 |

I. 머리말

역사 교육은 인간의 과거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를 기초로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신장시키며 바람직한 역사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역사적 사고력과 통찰력을 신장시키려면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역사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키기 보다는 대체로 정치사적인 입장에 치우쳐 세부적인 내용 전달에 집중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¹⁾

조선의 18세기의 역사는 학계에서 대체로 중세사회 해체기로 보고 있고,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근대 태동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선의 18세기 역사는 종합적 이해의 필요성이 다른 시기보다도 크다. 그럼에도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18세기 역사에 대한 서술은 종합적인 내용을 가르치기 어려운 구성이고, 학습하기도 어렵다. 이 시기 정치·경제의 관계가 밀접함에도 유기적 서술이 불가능한 분류사 체계를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²⁾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 연구된 18세기 조선사회의 모습을 교과서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사회는 개국 초부터 농본주의 정책을 주창하며 상업을 억제하였다. 18세기까지도 이런 정책이 유지되기는 하였으나, 17세기부터 시작된 농업에서

1) 중학교 국사교육 과정은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 구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회·경제사나 문화사 부분이 대폭 빠졌다(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2, 128쪽).

2) 현재의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6번의 교육 개정을 거쳐 시대사를 단위로 서술된 ‘기존의 통사론적 체계’에서 ‘분류사 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추구하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 별책7)』, 1998, 106쪽). 현 주제 중심의 분류사 체계는 내용을 체계적, 심층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서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대 흐름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용을 축소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의 변화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오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8세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대세를 이루면서 중앙정치의 지방 지배가 더욱 강화되고, 신분질서가 동요하고, 서민의 의식이 성장되어 서민문화가 발달한 것이 그 근거다.

이렇듯 조선의 18세기는 앞선 두 차례의 전란과 기근 등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18세기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유기적 관계를 높여갔다. 이러한 관계 속에 진행된 사회변화의 양상들 때문에 조선의 '근대사회 태동기'에서 18세기는 가장 두드러진다.

역사적 변화들의 원인을 몇 가지 요인만으로 짚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각 영역의 변화들은 18세기 상호관계에 의해 영향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8세기 조선사회의 특징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이후의 조선사회 변화를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서술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구성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순서로 고정되어 있어 역사적 흐름을 원활히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분류사가 정해 놓은 영역에 국한하여 설명하다보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상품 화폐 경제가 진전됨으로써 발생한 정치적 변화의 유기적 관계를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사에서도 서술의 초점이 국왕에만 맞춰지다보니 이 시기 정치에서 탕평정치만 논의될 뿐 국왕의 정책 실행을 도와주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세기 사회를 주도한 세도가문의 기원이 되는 '경화별열(京華閥閥)'의 등장에 대한 누락을 들 수 있다. 중간계층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 이후 사회사 서술에서 '경향

분기(京鄕分岐) 현상 역시 누락되었고, 문화사 서술에서 서민문화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중간계층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18세기 조선사회의 역사를 고등학생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시기 변화상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할 사실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짚어 볼 것이다.³⁾ 아울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한 18세기 역사상의 재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현재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서 역사 교육은 교수·학습 활동의 기본도서인 교과서가 교육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 교육되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2002년 초판이 발행되고 내용 보완과 근·현대사 분류사적 문제로 인해 2006년에 2편이 재발행 되었다. 따라서 본 글은 그리고 현 7차 교육과정 수정판인 『고등학교 국사』 2006년 판을 중심으로 교과서 서술을 살펴볼 것이다.

Ⅱ. 18세기 조선 사회의 변화상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유례없는 참화를 겪었다. 이후 복구차원에서 시작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행위는 기존 체제를 동요시키고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에 발달한 상품 화폐 경제는 이후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본고는 경제 분야의 변화를 시작으로 하여 이후 정치, 사회, 문화에 걸친 변화상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 제

농촌사회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의해 인적, 물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나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어 갔다. 황폐화된 농토를 다시 개간하고, 생산력 증대를 위한 농업기술발달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농지개간으로 발생한 지배층과 농민과의 지주·전호 관계는 이전의 신분제적 관계를 뛰어넘어 경제적 관계로 한층 강화된 모습을 띠게 되었다면 농민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농법 개량은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가져왔다. 특히 이모작을 위해 채택하게 된 모내기법은 농촌의 소득 증대를 가져왔다. 또 이전보다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와 일부 농민들은 경작지 규모를 확대하며 광작 경영을 이루었으며, 이것은 농민층 분해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⁴⁾

농업기술을 발달시킴으로 발생한 잉여생산물이 상품화되면서 농촌산업은 활력을 갖게 되었다. 더 나아가 화폐 유통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초기에 중앙 지배층은 화폐의 활성화가 어떠한 이득이 되는지 판단

4)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2, 지식산업사, 2007.

할 수 없었으나 점차 중앙 집권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현물로 이루어진 조세는 이동과 보관의 어려움이 컸지만 화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또 화폐의 활성화는 중앙에서의 지방장악을 의미했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 집권을 추진하는 지배층으로선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농촌의 상품 화폐 경제의 파급은 사회의 계층분화를 촉진시켜 기존 체제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농업의 생산력 증대 속에서 농민 일부는 경영형 부농이 되거나 서민 지주로 성장한 반면, 지주층에서 탈락한 일부 양반과 나머지 농민 대부분은 전호, 무전농민,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계층분화 현상을 만들에 내었다. 5)

토지에서 벗어난 일부 백성들은 일거리가 풍부한 대도시로 몰려 인구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수도인 서울은 왕도(王都)라는 이유로 지역차별 없이 전국 각지의 유민들을 모두 수용하여 진흥하였기에 어느 지역 보다 인구 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유민들은 경강을 비롯한 포구 주변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임노동이나 상공업을 통해 생업을 이어 나갔으며, 도시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자리하게 되었다. 6)

신분제와 자급자족 경제 체제에 토대를 두고 있었던 조선의 부세제도는 토지 소유와 상품 화폐 경제 체제에 기반한 부세제도로 바뀌어 갔다. 영정법으로 조세의 정액화가 정착되었으며, 농가에 현물을 부과하여 수취하던 공납제는 토지 소유에 따라 미(米), 포(布) 등을 수취하는 대동법으로 바뀌었고, 일반 양인의 균역은 균역법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개편된 조세제도는 당장의 민생안정과 정부의 재정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조세제도 이외도 정부는 기존 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 아래 국가의 주도로 일임했던 도시의 상업 통제권을 일부 개편하면서 상업의 활성화 움직임을 좌시하였다. 이로써 조선후기 상업은 기존 독점적 상업체제인 시전(市廛)의 굴

5) 최완기, 「임노동의 발생」, 『한국사34』, 국사편찬위원회, 1995.

6)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래에서 벗어나 난전(亂塵)을 바탕으로 한 민간주도의 상업으로 바뀌어 가면서 상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어 갔다.

15세기부터 등장한 장시의 경우 16세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 지방을 중심으로 5일장이 빈번해 지는 결과를 낳았다. 18세기에는 장시 사이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점차 전국 단위의 시장을 이루었다. 특히 서울과 포구를 끼고 있는 대도시 부근에는 거대한 대시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역들은 상거래의 활성화로 조선 후기에 와서 상업의 중심지로 떠올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선상, 객주, 여각 등도 주변에 나타나게 되었다.7) 포구와 시장은 경제적 호황과 인구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화폐교환의 장소로 각광 받았고, 서민들의 오락의 장소로 문화 창출과 전파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대동법의 실시와 함께 등장한 공인과 농촌의 사회 분해 속에 등장한 사상은 18세기 이후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며 물품의 매매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8)

대동법의 실시로 급격하게 증가한 관수품의 수요는 수공업의 활성화를 도왔다. 이것은 기존 관영수공업 뿐만 아니라 민영수공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민간의 자유 수공업이 등장하였으며, 민간의 주도로 전문적인 공장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진행되었던 광업도 민간 주도 아래 설점수세제(設店收稅制)로 전환되어 광산을 경영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9)

이러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은 다방면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으로 국가는 조세제 개편과 상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고, 경제적 이득에서 발생한 신분제의 동요는 임노동자라는 새로운 계층을 양산하여 생산과 소비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7) 서울의 3대 시장으로 시전인 운종가(雲從街-현재의 종로)와 성문 밖 장마단인 이현(梨峴-동대문), 칠패(七牌-남대문)이 있으며, 기타 포구에는 은진 강경장, 평화 대화장, 박천 진두장 등이 있었다(김중수,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5, 숲, 2002, 111쪽).

8)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신연식, 「조선후기 상거래형태와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6.

9) 유승주, 「광업의 발달」, 『한국사33』, 국사편찬위원회, 1995.

한 인구들이 집중된 포구와 대도시 주변은 인구 유동과 호황 속에서 문화의 산출 기능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18세기 경제의 발달은 당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하였다.

2. 정 치

18세기 조선 정치의 특징은 구조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영조와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국을 장악하고, 탕평을 실시하여 변질된 붕당을 억누르고자 하였다. 붕당세력의 경제적·사회적 유지 기반인 서원을 정리하고, 이조전랑의 권한을 축소시켜 붕당의 공론(公論)이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국왕은 붕당의 공론화를 차단시키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여갔다. 탕평책의 실시로 붕당이 종말을 고하면서 국왕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로써 이 시기 중앙집권체제는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18세기 비변사가 국가 중심축을 이루는 가운데 비변사의 주요직책을 주요가문이 차지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비변사는 16세기 초엽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에서 출발하였다. 임진왜란 과정에 전란수습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면서 최고의 관부로 자리하게 되었고 17세기에는 군사업무와 더불어 비변사의 정치적 기능이 더욱 강화되면서 정치와 행정적 기능을 총괄하는 새로운 체제로서 '비변사 체제'가 성립하였다.¹⁰⁾ 변화된 비변사 체제는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처하면서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변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역시 점차 고위관료 집단의 사유화가 되면서 이후 별열화(閥閥化)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¹¹⁾ 이

10) 이재철, 「17세기 비변사의 운영과 성격」,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5.

11) 비변사의 관료 구성은 3정승부터 공조를 제외한 5조판서, 각 군영의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박광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5, 64~69, 쪽).

들 중앙 관료 집단은 18세기 변화의 중심에서 사회·경제적 혜택을 가장 집중적으로 누리면서 서울 중심의 명가를 형성하여 '경화별열(京華閥閥)'이라 지칭되었다. 이후 이들은 특정 가문이나 지역과의 혼인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고 자치적인 교육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며 중요 요직을 점진적으로 독식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관직은 법적으로 세습이 보장되지 않아 몇몇 가문이 중요 요직을 독점하여 독식하는 '경향분기(京鄕分岐)'라는 사회현상을 만들어냈다.¹²⁾ 이중 왕실과 외척·종실 관계를 맺은 일부 가문은 더욱 특권적 권력을 가지고 집단화하여 19세기 세도정치의 맹위를 떨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더욱 벌열화 되는 양반과 일부 가문이 있었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향반(鄕班)이나 잔반(殘班)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양반의 분열로 지방에서는 양반의 권위가 줄어들고, 중앙 권력의 지방통제는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3.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은 조선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신분제도였다. 양반을 제외하고 사회적 차대 속에 있던 나머지 계층에서는 획득한 부를 가지고 신분상승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신분제의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18세기에 성장이 두드러졌던 중간계층의 신분상승 욕구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후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농업의 발전으로 발생한 경영형 부농층은 자신들의 물리적 기반위에서 신분을 상승시키고, 향촌 권력에 참여하려 하였다. 합법적 방법이나 비합적인 방

12) 경화별열과 경향분기의 대표적 연구자로 유봉학이 있다(유봉학, 「18·19세기 경향학계의 분기와 경화계족」, 『국학관논총』 22, 1991; 유봉학, 『연암일파의 북학사상연구』, 을유문화사, 1996).

법을 써서 양반신분으로 상승하여 국가의 각종 역(役)을 면제 받음으로서 종래 사대부와 같은 지위를 확보하였다. 또 여러 향직에도 진출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을 다스리는 실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¹³⁾

서얼(庶孽) 역시 기본 사회적 차대 속에서 허통(許通)운동을 전개해 끝임 없이 사회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양반서얼의 경우 18세기 초 모두 국역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으며, 18세기 말경 정조의 서얼허통(許通)으로 벼슬길 진출이 활발해져 30여명이 정규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현직이나 고위직 취임은 불가능했고, 평생 중하위직에 머물러야했기 때문에 통청운동(通淸運動)은 계속 전개되었다.¹⁴⁾

중인계층은 전문업무능력과 행정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재빠르게 변화하며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갔다. 잡과 출신 중인들은 관직의 독점과 세습을 통해 17세기 '잡과집안'을 형성하여 명문씨족에 편성되어 문벌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며, 역관들은 해외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외국의 문물과 정보 도입을 도왔다. 이 과정에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인집단 경아전(京衙前)은 자신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문화에 지원하면서 문화의 새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¹⁵⁾

하급행정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중인들은 하층의 불만과 공격으로부터 지배자인 양반 계급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양반관료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조선왕조의 안정과 지속을 도왔다.¹⁶⁾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영조와 정조는 중간계층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기용하여 정치구조 안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정조의 경우 규장각과 장용영에 이들을 대거 등용하여 관직 진출을 도와 이후 고위 관료직으로의 진출 사례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3) 김용섭 앞의 책.

14) 이종일,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1995. 41~55쪽.

15)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지역 중인세력의 성장과 한계」, 『역사비평』 21, 1993.

16) 김양수,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1995; 송복, 「양반체제의 지배 지속성: 중인계급의 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다산출판사, 1991, 485~494쪽.

중간계층의 신분상승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상민과 천민 계층에서도 지위향상론이 주장되었다. 경제적 부를 축적한 일부 계층은 신분상승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신분 분화의 움직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방면으로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전까지 사회적·경제적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양반 계층은 신분상승 현상으로 그 수가 증가되어 양반의 절대성과 희소가치가 감소하였다.

4. 문화

사회·경제적 변화의 움직임으로 인해 문화에서도 여러 갈래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17세기 후반부터 절대화되고 있는 성리학의 움직임에 맞서 반주자학적 유학, 양명학, 실학, 서학 등이 등장하여 사상 부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특히 실학은 지주·전호제를 위시하여 토지 개혁을 핵심으로 부세제도, 신분제, 농법, 상공업, 정치 운영 등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근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그러나 집권층은 이러한 개혁론을 거부하고 체제 유지에만 급급하여 임기응변식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지배층의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18세기 경제적 변화로 생활의 여유를 가지게 된 중간계층과 부를 축적한 일부농민, 상공업자들은 기존 양반의 전유물로만 여기지던 예술과 상업화된 문화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증식한 부의 재투자가 필요 없었던 서울의 경아전을 포함한 중간계층들은 자신들의 부를 문학과 음악, 그림 등 전 예술분야에 지원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여향문화(閭巷文化)를 만들어 냈다.¹⁷⁾

기존 사대부들이 지녔던 성리학적 가치와 달리 이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17)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190~214쪽.

본능과 감정을 인정하면서 인간성 자체를 표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추구하는 작품세계의 내용들도 치부(致富), 남녀 간의 애정 갈등, 군도(群盜) 형태의 민중 저항 등을 담으려고 하였다. 또한 소비적이고 유희적인 이들의 문화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결합되면서 유희의 상업화 경향을 심화시켜 문화적 향유가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특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¹⁸⁾

일반 서민들 역시 이러한 여향문화를 소비하고, 또 사회 부조리에 대항하면서 의식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앞선 중간계층의 문화보다는 자신들의 저항을 표출시키려는 의지에서 사회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하였다.

당시 서당 교육의 보급으로 일부 경제력이 있는 중·서민의 경우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사설시조와 한글소설, 민화 등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활동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대표적으로 판소리와 탈놀이 등이 여기에 속하고 이러한 서민 문화들은 사람의 유동이 많은 포구나 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조선의 18세기 변화들은 근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중앙집권체제는 근대적 성격을 띠며 더욱 강화되었고, 상품화폐경제로 인해 발생한 변화의 원동력은 이후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순차적으로 근대 사회에 다가서도록 만들었다.

18)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Ⅲ. 18세기 역사에 대한 교과서 서술 분석

현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전체 6개의 대단원 중 도입 단원인 ‘한국사의 바른 이해’와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을 제외한 4개의 단원을 분류사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대단원 아래 고대, 중세, 근세, 근대태동기, 근현대 5개로 나뉜 시대적 구분을 통해 차례로 중단원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대단원과 중단원의 목차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제 7차 국사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목차

| 대단원 (영역 분류) | 중단원 (시기 분류) |
|----------------------|--|
| I. 한국사의 바른 이해 | 1. 역사학습의 목적 2. 한국사와 세계사 |
| II.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 1. 선사시대의 전개 2. 국가의 형성 |
| III. 통치 구조와 정치활동 | 1. 고대의 정치 2. 중세의 정치 3. 근세의 정치 4. 근대 태동기의 정치 5. 근·현대의 정치 |
| IV.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 | 1. 고대의 경제 2. 중세의 경제 3. 근세의 경제 4. 근대 태동기의 경제 5. 근현대의 경제 |
|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 1. 고대의 사회 2. 중세의 사회 3. 근세의 사회 4. 근대 태동기의 사회 5. 근·현대의 사회 |
| VI. 민족 문화의 발달 | 1. 고대의 문화 2. 중세의 문화 3. 근세의 문화 4. 근대 태동기의 문화 5. 근·현대의 문화 |

* 표의 아래 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임.

본 글이 다루고자 하는 18세기의 내용은 근대 태동기라는 시기에서 논의되고 있다. '근대 태동기'라는 개념은 근세도 근대도 아닌 '근대를 지향하는 시기'로 일제의 식민지배로 근대화가 좌절된 우리민족만의 특수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 구분에 따른 보충 설명이 꼭 필요하지만 교과서 내에서는 서술을 찾아 볼 수가 없다.

1. 근대 태동기의 정치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분류사 체제에서 제일 먼저 정치사를 등장시키고 있다. 내용의 구성 역시도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행위에만 맞춰진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사 중심의 역사 구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사회, 문화의 양상들이 정치 구조에 따라 좌우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표 2》 제 7차 국사교과서 정치사 분야 세부 목차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소단락 |
|-----------------|---------------|--------------------|---|
|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 4. 근대 태동기의 정치 | 1. 근대의 세계 | |
| | | 2. 통치 체제의 변화 | -정치 구조의 변화 -군사제도의 변화 |
| | | 3. 봉당정치의 전개와 탕평 정치 | -봉당정치의 전개 -봉당정치의 변질과 탕평론 대두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
| | | 4. 정치질서의 변화 | -세도정치의 전개 -세도정치의 폐단 |
| | | 5. 대외 관계의 변화 | -청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

첫 번째 소단원 「1. 근대의 세계」에서는 근대 시기 세계사적인 사회 흐름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와 세계사의 연관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과정의 목표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¹⁹⁾

「2. 통치 체제의 변화」 첫 번째 소단락 정치구조의 변화에는 비변사의 구조 기능의 강화와 3사의 구조기능의 변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훈련도감’이나 ‘제승방락 체계’ 등 어려운 용어들은 따로 제시하여 풀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이 새롭다. 내용면에서는 비변사 기능의 강화 과정과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서술하였지만, 구성원들의 정치적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 구성원 관료층은 비변사의 권력을 발판으로 벌열화하고 이후 19세기 세도가문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서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내용의 누락으로 다음 단원인 「4. 정치질서의 변화-세도정치의 전개」에서 19세기 세도정치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다.

정조의 탕평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 정치의 발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3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왕의 외척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²⁰⁾

그리고 세도 정치 세력의 등장이 단순히 탕평의 실패론으로 등장한 결과물이 되었다고만 설명이 되어 내용적 한계도 지적된다. 따라서 이들 관료층의 벌열화 과정을 명확히 서술하여 이후 세도정치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단원 「2. 통치 체제의 변화-군사제도의 변화」에 있어 속오군 제도는 신분제 변동 원인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전까지 나누어져 있던

19) 역사과목의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칙으로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관시켜 체계적이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하는 방안이 규정되어 되어있다(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4 사회(역사). 교육과학 기술부, 2008).

20)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102쪽.

군역을 같이 부담하고, 그중에서도 군역의 의무조차 가질 수 없었던 천민이 군역을 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술에서는 '양반이 노비와 함께 속오군에 편제되는 것을 회피함에 따라 상민과 노비만 남았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적 의미를 축소시키고 또 다른 사회 폐단의 하나로만 이해시킬 소지가 있다.

18세기 정치를 다루고 있는 「3.봉당정치의 전개와 탕평 정치-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서는 두 왕의 탕평정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만 열거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전반적인 흐름보다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실증적인 세부 내용과약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보충자료로 제시된 '시흥환어행렬도'와 도움글로 제시된 '정조의 문물제도정비' 역시 지나치게 세부내용만 나열하여 뒤에 나올 사회, 문화 등에서 계속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탕평정치에 내용에 관하여 영조의 경우 그 업적과 한계점을 제시한 반면, 정조에 대해서는 정치 업적의 단면만을 서술하고 한계성은 제시하지 않아, 학생들이 정조의 치세를 미화하여 인식할 소지가 있다.

2. 근대 태동기의 경제

18세기 조선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사에서의 변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사의 변화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사회 전반적인 흐름 서술이 가장 필요로 한다. 하지만 분류사의 특성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서술되다보니 다른 분야사와의 연관성이 약해지고 역사적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설명이 약해졌다. 소단원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제에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8세기의 경제를 확연히 분류하기는 어렵다. 서민 경제가 발전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상품 화폐 경제가 뚜렷

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표 3》 제 7차 국사교과서 경제사 분야 세부 목차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소단락 |
|--------------------------------------|--|-----------------|--|
| IV. 경제 구조 와 경제 생활 | 4. 근 대 태 동 기 의 경제 | 1. 수취체제의 개편 | -농촌사회의 동요 -전세의 정액화 -공납의 전세화 -균역법의 시행 |
| | | 2. 서민 경제의 발전 | -양반 지주의 경영변화 -농민 경제의 변화 -민영 수공업의 발달 -민영 광산의 증가 |
| | | 3.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 -사상의 대두 -장시의 발달 -포구에서의 상업활동 -대외 무역의 발달 -화폐의 유통 |

《표 3》과 같이 경제사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소단원 「1. 수취체제의 개편」에서는 전란 후 농촌사회의 모습과 조세체도의 법적인 조치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위주의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편된 조세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가되고 있는 반면, 결과론에 해당하는 개편된 조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시 없이 단순히 ‘운영과정에서의 폐단으로 다시 농민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다.’ 라는 결론만을 취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개편된 수취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체제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특히 균역법의 경우 단순히 균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고 서술하였지만 영조의 왕권 강화책의 일부로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반영된 정책이다. 따라서 조세제도 개편에 있어서의 정치적 연관관계도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2. 서민 경제의 발전」에서는 양반 지주의 경영변화와 농민의 경제 변화 과정을 서술하면서 농촌의 상품 화폐 경제로의 발전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 생겨난 신분의 분화도 일부 설명하고 있으나 자세하게 논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경영형 부농의 경우 이후 사회 변화에서 커다란 주축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 수공업의 발달과 광산의 증가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논하고 있는데, 광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변화가 커다란 요인임에도 이러한 배경 설명 없이 단순히 증가 과정만을 설명을 하고 있다.

「3.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단원에 있어서 사상의 활동과 장시의 발달 과정, 포구에서의 상업 활동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첨부자료로 김홍도의 '장터길' 그림과 '도고의 활동'과 '포구상업'에 관한 보충 내용이 이 제시되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하지만 상품 화폐 경제의 활동의 주역을 지나치게 상인 위주로 기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더불어 소비의 주체도 확대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인구 증가 경위에 대해서도 논의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사상과 경강상인이 성장할 수 있던 도성 주변의 상업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실 나열식이 아닌 세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상업 경제의 활성화 과정에서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찾기 힘들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농본역상 정책을 유지하면서 상업에 대해서 통제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지원 배경에는 왕실의 중앙집권체제의 결속과도 연계되는 정치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술이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화폐 유통」 부분에 서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정부도 화폐유통에 힘써 인조 때 동전을 주조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시켜 그 쓰임새를 살펴보고, 효종 때에는 이를 널리 유통시켰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²¹⁾

정부의 화폐유통 확대에 대해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고 있다. 화폐 유통의 정치적 의도가 큰 만큼 정치적 배경도 인지시켜 두 분류사간의 연관성을 확 인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근대 태동기의 사회

조선 후기 사회에서 커다란 변화는 조선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신분제의 동요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적 변화로 인해 기존 사회적 신분제를 뛰어넘는 또 다른 경제적 지위가 발생했음 시사해 준다. 사회사 분야에서 3개의 소단원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표 4》 제 7차 국사교과서 사회사 분야 세부 목차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소단락 |
|--|--|---------------|--|
| V 사 회 구 조 와 사 회 생 활 | 4. 근 대 태 동 기 의 사 회 | 1. 사회구조의 변동 | -신분제의 동요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노비의 해방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 |
| | | 2. 향촌질서의 변화 |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 -농민층의 분화 -관권의 강화 |
| | | 3. 사회 변혁의 움직임 | -사회불안의 심화 -예언 사상의 대두 |

우선 첫 번째 소단원 「1. 사회구조의 변동」 양반, 중간계층, 노비 계층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양반의 경우,

21)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172쪽.

조선 후기에는 양반 상호간에 일어난 정치적 갈등으로 어느 한 봉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전개되었다.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을 제외하고 다수의 양반은 이 과정(일당 전제화)에서 몰락하였다.²²⁾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일당전제화가 이후 19세기까지 유지되어 정치상으로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충 설명 없이 향반과 잔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앞서 정치사 분야의 교과서 분석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일당전제화의 세력들 즉, 중앙권력의 중심에서 더욱 세력이 커지는 경화별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누락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이후 이들에 의해 나타나는 '경향 분기'라는 사회적 현상 역시 사회사에서 서술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중간 계층의 경우 서열과 중인층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서열의 신분 상승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한 반면 중인층의 성장과 사회에 미친 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서술이 아래와 같이 소략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열의 신분상승 운동은 기술적인 중인에게도 자극을 주었다. 그들은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추구하였다.²³⁾

더불어 중간층이 이후 경제나 사회·문화에 미친 영향도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당시 사회변화에서의 이들의 영향력을 간과하였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특히 정치에서의 중간층의 역할은 왕권의 중앙집권정책 과도 상관이 깊어 이들의 등용 배경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등용은 곧 능력에 따라 신분 상승이 가능한 근대사회의 요소라는 점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22)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221쪽.

23)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222쪽.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에서는 부계·장자 위주의 가족관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 이러한 가족관 형성은 현재에도 사회 문제시 되는 남아선호 사상과 관련이 깊은 만큼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변동」에 대해서도 지역별 인구 구성에 대해 수치로만 기술되고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단락 「2. 향촌질서의 변화」에서 양반의 향촌 지배 약화 과정과 이 과정에 성장한 부농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부농이 되어 양반화가 되거나 혹은 몰락하여 임노동자화 되는 농민분화 과정만을 설명하고 이들로 인해 빚어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또한 앞 경제사 분야의 「2. 서민 경제의 발전-농민 경제의 변화」와 차이점이 없이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4. 근대 태동기의 문화

근대 태동기 문화사 영역의 소단원은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다. 문화사 세부 목차를 살펴보면 단원의 절반이 성리학과 실학이라는 지배층의 사상이 차지하고 있다. 《표 5》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18세기 문화의 커다란 특징 서민문화의 발달은 하나의 소단원에 묶여 비중이 소략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구성만 살펴계 된다면 당시 서민문화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표 5》 제 7차 국사교과서 문화사 분야 세부 목차

| 대단원 | 중단원 | 소단원 | 소단락 |
|---|--|--------------|---|
| VI 민 족 문 화 의 발 달 | 4. 근 대 태 동 기 의 문 화 | 1. 성리학의 변화 |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 -양명학의 수용 |
| | | 2 실학의 발달 | -실학의 등장 -농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국학 연구의 확대 |
| | | 3. 과학 기술의 발달 | -서양 문물의 수용 -천문학의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 -의학, 농학의 발달과 기술 개발 |
| | | 4. 문화의 새 경향 | -서민문화의 발달 -판소리와 탈춤 -한글소설과 사설시조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건축의 변화 -백자 |

조선후기 사회에서 성리학과 실학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성리학의 경우 조선 건국부터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정쟁의 중심에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등장한 실학은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의 방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실학이 성리학으로부터 파생된 사상인 만큼 서로의 유기적 관련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소단원으로 나누어진 목차와 내용으로 인해 두 사상은 따로 전개 되어 학생들이 두 사상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²⁴⁾

소단원 「4.문화의 새 경향」에서는 서민 문화의 발달 과정과 종류를 담고 있다. 문화를 즐기고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와 안정이 기반 되어야 한다. 당시 이러한 조건이 가능한 것은 기존 지배층과 후기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여유가 생긴 중간층, 상공업인들, 일부 부유한 농민들에 한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지원에 의해 서민문화가 주도되고 상업화되어 이후 문화 활동이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나타내기

24) 유봉학,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7차) 조선 후기 문화사 서술의 재검토」, 『역사문화논총』 2, 2006, 253쪽.

도 하였다. 그런데 교과서 서술에서는 이러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등과 같은 문학들과 민화가 서민층까지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문화일 경우 경제적 여유와 학습이 요구되는 만큼 모든 서민이 이와 같은 문화생활을 누렸을 리는 없을 것이다. 서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교과서의 문화사 영역에 서술되어 있는 전반적인 내용 구조를 살펴보면 역사적 흐름의 맥을 이해시켜주기보다는 내용의 사실 나열에만 치중하여 서술하고 있다. 일부를 발췌하여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 유형원은 균전론을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제도의 모순을 비판하였다.²⁵⁾

나)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농업에서도 영농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²⁶⁾

다) 박세당은 색경을, 홍만선은 산림경제를, 서호수는 해동농서를 저술하여 농업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²⁷⁾

이러한 지나친 사실 위주의 나열식 서술은 역사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암기 위주의 과목이라 인식하게 만들어 자칫 학생들에게 역사과목의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²⁸⁾ 당시 시대상을 전달하려는 역사 교육의 목적이 반영되어 재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302쪽.

26)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304쪽.

27)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6, 308쪽.

28) 나열식 서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나열된 사실들이 가지는 역사적 위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김한중, 「역사의 표현양식과 국사 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76, 2000).

IV. 고등학생을 위한 18세기 역사의 재구성

앞서 현재 역사교육현장에서 교육의 기본서로 활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18세기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 분석을 통해 18세기 조선시대 역사 전반에 걸친 서술 형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살펴보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의 재구성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현 국사교과서의 구성이 분류사이고, 본 논고 역시 이것을 따라 분류한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따른 분류 방법으로 살펴보겠다.

1. 정치 - 비변사 중심 정치구조와 경화벌열

그 동안 교과서에 서술된 정치사의 경우 초점이 국왕에게만 맞춰져 있고 국왕의 정책을 이반하는 정치세력이나 피지배층에 대한 설명은 되어있지 못하였다. 18세기 교과서 서술 역시 영·정조의 탕평정치와 업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한 반면 19세기 세도정치의 중심이 되는 경화벌열의 등장에 대해서는 언급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당시 정치상황을 폭넓게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았다.

중앙집권과 상품 화폐 경제의 정치사적 결과인 경화벌열의 경우 경제 변화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내용이 풍부해 질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사족들은 비변사 같은 권력기구를 통해 중앙에서의 권력을 사유하였고, 이어서 발생한 상품화폐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력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벌열화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경향분기라는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당시 정치, 사회, 경제가 모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학생들에게 인지

시켜야 한다.

이들 경화별열은 주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여 19세기의 세도정치의 기원이 되는 만큼 18세기에 이들의 성장과정을 명확히 인식시켜주어 이후 탕평정치가 좌절된 후 19세기의 세도 정치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안동 김씨, 대구 서씨, 풍양 조씨, 연안 이씨, 풍산 홍씨, 반남 박씨, 경주 김씨, 연안 김씨 등 19세기 대표적 세도 가문들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예로 들어 경화별열을 설명한다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²⁹⁾

지배- 피지배의 관계는 정치의 가장 기본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배층과 지배의 실상이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피지배층의 존재 형태와 저항 양상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³⁰⁾ 지배층이 어떻게 지배했으며 특히 경화별열이 어떻게 지배층으로 군림하고 지배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도 피지배층의 양상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경화별열의 성장과 더 넓게는 피지배계층과의 관계 설정도 면밀히 살펴보아 학생들에게 당시 정치상을 더욱 폭넓게 인식시켜야 하겠다.

2. 경제 -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과 중앙 집중

18세기 조선사회의 특징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이후 조선사회 변화를 주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교과서 서술에서는 분류사 체제에서 발생하는 한계로 이러한 경제 관계에서 파생된 영역 간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상품 화폐의 발달로 조세의 수취가 더욱 원활히 되어 중앙의 지방 지배는 더욱 강화되었고, 영조와 정조는 이것을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발

29)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上 1800~1863』, 청년사, 1990, 224쪽.

30)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 2 중세편』, 풀빛, 1995, 359쪽.

전시킬 수 있었다. 현물보다 이동이 편리한 화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바탕으로 중앙집중화 현상이 더 심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상품 화폐의 발달은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며 당시 정치 변화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위 관직자들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경제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고, 이는 거꾸로 이들의 정치권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국가의 경제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가운데 주요 고위 관직자를 배출하는 가문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자리 잡은 소수 가문으로 국한되어갔다. 이들을 가리켜 경화별얼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혼인이나 자치적 교육을 통해 인맥을 형성하며 수도에서 명가를 형성하였다. 또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양상이 지속됨으로써 경향분기라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로써 중앙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지방은 권력에서 점차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상품 화폐 경제의 구조 속에서 발생한 부(富)는 당시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신분제를 동요시켰다. 부를 소유한 계층은 경제지위에 맞는 신분상승의 노력을 진행하여 신분상승을 획득하였고, 경제적 관계에서 낙오되는 계층은 생산활동의 주역이 되어 상공업 발달과 활성화에 도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³¹⁾ 부를 획득한 일부 계층에서 서민문화를 지원하여 발달시켰고, 이러한 영향으로 상품문화가 발달했다는 점에서 당시 경제적 변화는 사회·문화사에도 커다란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8세기 경제는 당시 변화 흐름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경제사를 바탕으로 한 다른 분야의 유기적 변화 과정을 명확히 인식시켜 당시 시대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18세기 이러한 변화의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던 곳은 수도 한양이다. 한양은 예부터 왕과 지배층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고,

31)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 : 근대 시민 형성의 역사적 기원」, 연세대 박사논문, 1992.

조세의 집결지였기 때문에 상업 발달의 가능성이 언제나 농후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란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밀집되면서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시켜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³²⁾ 따라서 수도 한양을 제시하여 18세기 조선사회 변화상의 교육 방법도 대안으로서 제시해볼만 하다. 이럴 경우 경향분기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도 접근이 용이할 것이며, 현재의 서울 집중 현상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해법을 찾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 - 중간계층의 성장

18세기 사회사 분야의 커다란 특징은 신분제의 동요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한 신분들 간의 갈등과 동요과정을 상세히 다루고 있지 못하였다. 특히 18세기에 성장하여 이후 근대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는 중간계층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당시 중간계층에는 서얼과 나라의 전문·행정일을 맡아 보는 중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교과서에는 서얼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로 지적한 중간계층의 신분 상승 노력과 이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근대 역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시민계급의 성장이다. 조선시대 역시 근대 태동기가 근대를 지향하는 시기인 만큼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시민 계층에 해당하는 중간계층의 성장과 역할의 확대가 그것이다. 이들 중간계층은 경제변화의 주역으로도 존재했고, 일부는 축적된 실무능력으로 나라의 행정을 일임하면서 양반과 왕권을 보좌하였으며 왕 역시 이들을 적극 기용하였다. 특히 이들은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를 지원하고 다양화시킴으로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었

32)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변모와 그 의미」, 『역사교육』 60, 1996.

다.

이렇듯 중간계층은 경제, 사회적 지위를 꾸준히 상승시켜 이후 19세기 말 국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계층의 확대를 불러온 18세기의 배경과 중간계층에 대해 학생들에게 폭넓고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중간계층의 성장과 활동에는 당시 경제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변화와 연결하여 중간계층 성장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 중간계층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필요시 인물사적 접근 학습 방법도 교육에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³³⁾

4. 문화 - 서민문화의 발달과 그 배경

교과서에 기술된 근대 태동기 문화사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내용 구성의 절반이 지배층의 문화인 성리학과 실학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18세기 문화사의 대표적 특징인 서민문화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고, 서술된 내용면에서도 충분한 발달 배경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 서민문화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초기 서민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를 획득한 중간계층과 일부 상공업자, 부농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서민문화는 점차 상업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은 서민문화의 발달 과정을 간단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문화사 교육에서는 서민문화의 명확한 서술 확대와 사실 나열식의 서술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앞 사회사와도

33) 정선영 외, 앞의 책, 193~195쪽 .

중복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경제적 여유와 지원이 필요한 문화에 대해서 지원과 전파라는 중심역할을 한 중간계층과 상공업자 부농층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들로 인해 당시 서민문화의 성격이 소비적이고 유흥적인 경향으로 나아갔다. 더 나아가 당시 문화의 향유가 경제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만큼 경제·사회사와의 연결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까지의 서민문화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대결구도 속에 저항문화라는 성격만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하여 당시 사회에 경화 열열과 일부 부를 획득한 중간계층에 의해 발달하게 된 여항문화도 소개된다면 학생들이 그 시대의 다양한 생활과 문화를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는 지배층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지배층에 한정하여 향유되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성장한 중간계층과 서민계층, 여성들은 서민문화를 발생시키며 문화에서의 변화를 주도하였고,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유하려고 하였다. 문화를 만드는 주체의 변화와 문화생활을 누리는 범위의 확대는 곧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 없이 단순히 문화의 결과물만을 논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폭넓은 변화상을 전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화와 경제, 사회의 관련성을 단절시키는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문화사 교육에서는 당시 문화의 변화상과 이것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여 당시 사회상을 교육시켜야 하겠다.

V. 맺 음 말

현행 7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기존의 시대사 중심의 통사체계에서 분류사 체계로 전환하였다. 역사의 전개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있는 분류사 체계는 학생들에게 구조적, 체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 체제에서는 구성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대 흐름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영역을 분류한 결과 영역 간의 내용 단절을 불러 일으켰으며, 영역 간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서술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까지 소략되거나 누락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18세기 조선의 시대상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조선의 18세기는 각 영역간의 유기적 관계가 어느 시대보다 높아진 시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18세기의 대표적 특징인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은 이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영역 간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당시 사회의 변화상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18세기 역사를 고등학생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준비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시기 변화상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할 사실들을 검토하고, 교과서 분석을 통해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우선, 18세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기존의 중앙집권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는데 정치사의 경우 초점을 국왕에게만 맞춰 서술하고 있어 두 영역간의 유기적 관계가 단절되었다. 또 국왕의 정책을 수행하는 정치세력이나 피지배층에 대한 설명은 누락되어 학생들에게 당시의 정치상을 폭넓게 바라보지 못

하게 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에서 신분제의 동요 역시 중요한 현상이었고 이러한 동요의 중심에는 중간계층의 성장이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중간층의 영향력을 소략하여 서술함으로써 이후 이들의 의해 발생된 신분제의 동요나 서민문화에 미친 영향 등을 폭넓게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사회사와 연결되지 못한 문화사는 역시 당시 문화사의 대표적인 특징인 서민문화의 발달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작품에 대한 소개만 나열하게 된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학습의 부담감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한 18세기 역사상의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사의 경우 누락된 경화별열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여 이후 19세기 세도정치와의 연계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향분기라는 사회현상도 명시하여 당시 정치상과 사회상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사의 경우 상품 화폐 경제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18세기 전반적인 사회상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장 변화가 컸던 수도를 예시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회사의 경우 중간계층이 미친 사회적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서술하여 이후 문화사에서 등장하는 서민문화 발달 과정에 대한 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문화사는 당시 문화의 결과물 뿐 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폭넓은 변화상을 전달하여 당시 사회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방법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완벽한 방안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현행 분류사 체계 속에 영역 간 유기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 역사를 가르쳐야 할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가 누락하고 있는 영역 간 유기성을 교사의 재량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직에 몸담는 교사들 역시 시대사 중심으로 교육받았으며 분

류사적 체계에 따라 교육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분류사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의 재교육과 교과서가 중복을 피해 누락하고 있는 영역 간 유기성을 제시하는 보조학습 도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교과서, 교육과정

- 제7차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4 사회, 교육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4 사회(역사), 교육과학 기술부, 2008.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7), 대한교과서, 1998.

2. 연구논저

1) 저서

-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8.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김정호 외,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김종수,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5, 숲, 2002.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2』, 지식산업사, 2007.
유봉학, 『연암일파의 북학사상연구』, 을유문화사, 1996.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2.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上 1800~1863』, 청년사, 1990.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사 입문 2. 중세편』, 풀빛, 1995.
한국사연구회편, 『한국사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8.

2) 논문

- 고동환,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 변동」, 『서울상업사』, 태학사, 2000.
- 김종수, 「조선후기 훈려도감의 설립과 운영」,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양수,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1995.
- 김한중, 「역사의 표현양식과 국사 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76, 2000.
- 박광용,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송복, 「양반체제의 지배 지속성: 중인계급의 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다산출판사, 1991.
- 신연식, 「조선후기 상거래형태와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6.
- 유봉학,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7차) 조선 후기 문화사 서술의 재검토」, 『역사문화 논총』 2, 2006.
- 유봉학, 「18·19세기 경향학계의 분기와 경화거족」, 『국학관논총』 22, 1991.
- 유승주, 「광업의 발달」, 『한국사』 33,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이재철, 「17세기 비변사의 운영과 성격」,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종일, 「양반서열의 통칭운동」,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지역 중인세력의 성장과 한계」, 『역사비평』 21, 1993.
- 조성윤, 「조선후기 서울 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 : 근대 시민 형성의 역사적 기원」, 연세대 박사논문, 1992.
- 최완기, 「임노동의 발생」,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1995.
- 최완기, 「조선시대 서울의 변모와 그 의미」, 『역사교육』 60, 1996.

Abstract

Educational research in the history of 18th century Joseon Dynasty

Bae, Sun-min

Dept. of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Joseon in the 18th century was a period of great change and reform in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ectors due to progress in Korea's "Goods Monetary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and note the important changes in Korean history during this era.

The current textbook used today, 『High School Korean History』 is not only difficult to teach for teachers but it is also difficult for learners to study due to its complexity. It is disputed that the textbook does not give an overall perspective of the times due to the system founded by the classifier system, and that it does not reflect the recent studies and research discovered by historians on 18th century Joseon.

To resolve such disputes, this study lays its purpose to help high school students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history of Joseon in the 18th century. To achieve this goal, the paper will review the facts that the text should have explained in the important changes in Joseon, spec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and

through analysis of the text, present a reconstructive solution of the text.

The problems of description in the text and solutions are as follows.

In political history, as the frame is limited to what the classifier outlines, the text fails to explain the intrinsic relationship between the progress of the 'Goods Monetary Economy' and the reigning central government of the period. The text merely discusses the "Tangpyeong" politics(蕩平政治) of this period as it lays its focus on the monarch. It is necessary to inform a wider perspective of political configuration to students, such as, describing the situation between the civilians and the politicians who advised the King to make decisions. By reintroducing the currently omitted "Kyong Hwa Beol Yeol(京華閥閥)" to the text, the text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18th century politics with the 19th century "Sedo" politics(勢道政治). Also, by specifically explaining the social phenomenon "KyongHyangBunKi(京鄉分岐)", be able to draw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of the political and social figures of the times.

Although the "Goods Monetary Economy" was a milestone and characteristic of the 18th century which led to changes influencing modern Korean society, the text fails to explain the various interaction and situation among the public sectors during this time.

This paper will propose an educating plan which uses the capital city as an example to give insight to students of the situation during this period. The capital city will be the appropriate location to explain how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Goods Monetary Economy" affected the general public and government sectors in the 18th century.

Therefore, the text used to educate students must fully explain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period by addressing specific issues,

relationships and the influence the middle class held during the era.

These solutions for resolving the dispute raised above can be imperfect as the fundamental problem lays unresolved. This is due to the fact the current classifier system fails to bring forth the relationships between certain sectors during the period and is still under dispute of how to bring changes. These fundamental problems can only mean the teachers' role in educating students becomes more important as they will be asked to explain the omitted information in their own words. However, current teachers were also taught in the same outdated manner and will face difficulty in informing students of recent findings and information. Therefore it is critical for a re-education of teachers of the information outside the text as well as providing supplementary learning tools and texts to guide both teachers and students.